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유화정** · 김효정***

| 목차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흐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쟁점
3.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 2) 자료 수집 및 분석
4. 분석 결과
- 1) 가정폭력의 시작: 고립과 통제
- 2) 코로나19 시기 고립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집'
- 3) 코로나19 시기 상담소 운영 제한 및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 4) 코로나19 시기 보호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5. 결론 및 논의

| 초록 |

본 연구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 이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김효정·황정임·고현승·박연주·유화정,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에서 저자들이 집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님께서 깊이 감사드린다.

** 제1저자: 동국대학교 hwajeong.kimyoo@gmail.com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jkim@kwdimail.re.kr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조치들은 피해여성들을 집에 고립시켜 폭력 피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가정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고군분투하면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지원체계는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감과 안정감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팬데믹 선언 초기, 대면상담 금지, 기관폐쇄 등 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로 인해 피해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한정되었고, 재난 대응 매뉴얼의 부재로 인한 초기의 혼란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대면상담 금지 및 기관 운영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보호시설 경우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제시되어 왔었던 공동생활의 어려움과 개인 공간 제공 등의 문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기존의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문제들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피해여성들의 안전 보장과 일상의 삶으로의 회복은 지체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원칙에 대한 재확인,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운영과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매뉴얼 개발 및 배포,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공동생활에 따른 문제 해소와 시설 운영 방식의 다양화,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가정폭력, 젠더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대응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운영 방식을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여,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한다.

코로나19 시기 안전한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가 제시되고 공공기관 폐쇄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 건강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인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UNFPA, 2020; UN Women, 2020a; WHO, 2020).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유럽, 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UN Women, 2020a), 한국의 경우 유의미한 증감 추세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전형적으로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고, 더구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및 상담 건수를 통한 코로나19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신고 및 상담률의 하락을 가정폭력 발생의 감소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홍미리, 2020).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한 초기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0년 8월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개인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급적 ‘안전한 집’에 머무르라는 방역 전략이 제시되면서, 여타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동일하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휴관을 권고하는 등 감염병 초기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조치에 미흡한 양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대면 상담 축소, 캠페인 및 교육 개최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송관희, 2020; 제오복, 2020; 김원정 외, 2020). 또한 2020년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세대주가 아닌 가

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변이 노출되어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한국여성의전화,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과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회적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공공시설, 복지기관과는 다르게 어떠한 긴급상황에서도 항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의 부재,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쉼터 운영의 필요성 등, 코로나19 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문제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면서 촉발되고 강화되어 드러난 측면이 있다. 근대화 시대, 고립과 통제에 기반해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 지원 시스템 제도는 탈근대로 나아가며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당사자의 권한과 역량강화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제도와 체계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고,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피해자의 권리와 자립역량을 도모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김홍미리, 2018; 정춘숙, 2015). 또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체계는 자녀를 둔 전업주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초기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쉼터 운영 방식의 변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한국여성의전화·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하는

문제들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과 개인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상담의 경우 감염병의 영향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걸맞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호시설의 경우, 차단과 통제에 기반한 공동생활 중심의 운영이 현대사회의 가치관 및 생활방식과 충돌할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여러 개인적·사회적 고립을 경험해 온 피해자들을 폭력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또다시 고립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다양한 쉼터 모델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유화정 외, 2019; 김원정 외, 2020;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지금까지 피해여성들의 시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현행 지원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된 지원들은 피해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로 인해 변화된 시설 운영방식 속에서 피해여성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현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드러나고 강화된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향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

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코로나19 시기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면밀히 듣고 분석하여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역사적 흐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드러난 쟁점

한국 사회에서 80년대 민주화 운동 및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가정폭력 문제는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1996년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정폭력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1997년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두 개의 특별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이미정 외, 2008). 가정폭력 문제의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뜻깊은 성과로 가정폭력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이슈로 전환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지원기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여성주의 관점과 운동성에 기반한 초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피해자 지원을 여성운동이 아닌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신상숙, 2008). 「가

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쉼터 운영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열악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한편, 기관의 자율성 및 운동성을 약화시키는 양면적 효과를 낳았다(이미정 외, 2008: 29-31).

1998년 여성폭력피해 초기 대응체계인 여성긴급전화 1366이 개통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긴급전화-상담소-보호시설을 중심축으로 하는 현재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틀이 갖추어졌다. 또한 기존에 소수의 민간 여성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쉼터가 양적인 차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별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상담소 213개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 외에도 이주민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특화된 시설인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9개소)와 보호시설(33개소)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바라기 센터(39개소)를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24).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설치와 확대는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과 서비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원칙 및 방향에 대한 의제 설정이 모호한 상태로 개별 기관의 역량에 맡겨지고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방식이 예산 지원과 서비스 제공 차원에 집중되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폭력철폐를 위한 운동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운영 이슈가 분리되는 양상이 강화되었고,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선도하는 여성주의적 기관으로서의 지원기관의 성격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로서 지원기관 운영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김소정, 2005; 신상숙, 2008).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과 정책 수립을 통한 가정폭력 문제의 공식화는 분명 페미니스트 운동의 흐름에서 출발한 정치적 투쟁과 분석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후 페

미니스트 정치학 또는 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축소되면서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화하는 보수적 담론이 강화되는 상황은 제도화의 문제이자 퇴보로 평가된다(허민숙, 2011: 151).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80년대 이후 여성주의 운동의 성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논의가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하면서 90년대와 2000년대를 경과하며 제도화를 통한 유의미한 성과들이 도출되었고, 피해자 지원기관의 규모 역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가정보호에 초점을 두는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에서 보여지듯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을 두는 방식으로 가정폭력피해 지원 제도화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책의 수단이나 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을 둘러싼 정치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연관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운영 목적과 원칙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젠더화된 사회구조의 문제로 젠더기반폭력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과 피해자 회복의 책임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성과 시설 운영 역시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다루어져야 한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철폐선언」 제4조는 국가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체 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국제협력, 국가 행동계획 수립, 여성폭력 근절 활동을 위한 정부예산 마련, 폭력 예방 교육의 마련, 관련 연구수행 및 데이터 수집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보장과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로 긴급전화, 형사·사법적 대

응, 보건·의료적 대응, 숙소, 쉼터 및 상담의 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UN Women, 2020b: 2).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국가적 책무로 피해자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젠더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정폭력 이슈를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소, 쉼터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중단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목적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명확한 사회일수록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의 또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붕괴된 사회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업으로 설정되고, 그 속에서 가정폭력, 여성폭력 이슈는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거나 재난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탈적 상황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김효정, 2020: 15-16).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대응조치 초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사회적 대응조치 강화에 따른 지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도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관 등 방역 관련 지침이 제시되어, 가정폭력피해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김원정 외, 2020: 220-223). 앞서 우리나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과정의 결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피해자 지원의 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시설로서의 역할

이 보다 강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여타의 사회서비스 제공시설과 다르게 보지 않는 이러한 인식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여 휴관, 방역물품 지급 등에 관한 개선된 대처방안이 제시되었고, 2023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대응조치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당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발생한 문제들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 초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국가 정책안에 제도화하여 안착 시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재의 지원체계 구성과 운영 방법이 그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지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UN Women, 2012).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원과 피해 회복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난 시기 강화되는 젠더 불평등과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를 사회구조에 내재된 성별 규범과 재난 시기 남성성의 위협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김효정, 2020; 김소진, 2022; Enarson, 1999; Parkinson, 2013; Enarson and Pease, 2016; Fraser, 2020),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실질적인 지원시설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일천하였다. 본 연구는 80년대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구

축되어 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시설 운영,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이슈들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과 교차하면서 어떻게 변화, 강화되는지를 피해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2020년 2월부터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점(2022년 9월~10월)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시기인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의 기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시기라는 점에서 연구참여자 섭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와의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한 협조를 구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피해자의 연령대와 이들이 이용한 지원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경험과 욕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따라서 특정 연령대 또는 특정 지원시설 이용자로 연구참여자가 한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지원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코로나19 시기 동안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 간의 연관성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으나, 되도록 다양한 지역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편이다. 연구참여자가 이용한 시설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이용시설의 유형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섭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보호시설이라는 점에서 상담소보다 보호시설 이용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¹⁾

면접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이 이루어지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방역에 유의하면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대	가해자	주요 이용시설	인터뷰 당시 상태
사례1	20대	친부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2	3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3	3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4	3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5	3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6	4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7	4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1)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을 거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이용서비스에 1366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사례12의 경우에는 1366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1366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이용서비스에 여성긴급전화1366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구분	연령대	가해자	주요 이용시설	인터뷰 당시 상태
사례8	4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9	40대	시누이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10	50대	남편	상담소	가해자와 거주
사례11	5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거주
사례12	50대	남편	1366, 상담소	이혼, 독립 거주
사례13	6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14	6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사례15	70대	남편	보호시설	보호시설 퇴소

2)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자문 회의와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면접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개요와 질문지를 사전에 전달하여 원활한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수행되었다. 조사 당일에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면접조사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였다. 조사 내용은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윤리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대답 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에게는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충분히 감정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한 후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정폭력의 발생과 유형 및 피해 정도, 폭력 발생 이후의 대응 및 대처 경험, 지원기관 도움요청 경험,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경험과 어려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관련 정책 수요 등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과 방향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면접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면접 진행 흐름에 따라 세부적인 질문을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등 열린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고 축약하였고 공통되는 내용을 분류하여 핵심 내용과 의미를 도출하였다. 피해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하는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인식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구조의 영향력,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미치는 영향력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분석 결과

1) 가정폭력의 시작: 고립과 통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이 연애 혹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답했고, 특히 폭력의 시작은 고립과 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첫째, 폭력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관계이고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는’ 정서상 고립되기 쉬우며, 둘째, 한국의 가부장제적 문화 안에서 여성(아내)에 대한 남성(가부장)의 통제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고립과 통제적 특성이 생겨난다.

가정 폭력은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쪽 있었던 것 같아요. [...] 어떻게 하다 보니깐. 정상적인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 친구, 사회생활 등 모든 게 단절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나, 가스라이팅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이고 제한적이고, 회사에서는 착실하고 성실했던 부장님이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저를 너무 제압하고 핸드폰이고 뭐고 가족들과 연락 다 두절 되고 왜 연락하느냐고, [...] 처음에는 저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마냥 그런가보다 이러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다못해 시장을 가도 본인과 같이 가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의치증도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첫째를 임신하면서 질염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밤에 대뜸 어떤 남자와 뭘 했기에 질염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껌판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집 전화도 따르릉 세 번 안에 안 받으면 다른 남자와 뭐했냐면서 추궁이 들어가고, 그런 날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껌판을 부리고 난리를 피우죠. (사례6)

사례 6은 회사 상사로 만난 남편이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님, 친구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로부터 고립시켰으며, 가부장적인 가치관으로 사례 6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이가 생기면 나아지겠지’ 라는 사례 6의 기대와 달리, 남편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집착과 스토킹(의치증)으로 발전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트러블 중의 하나가 저를 친정집에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랑 나 이 차이가 20살이다 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매우 달랐어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으로 여자가 결혼했는데 친구를 왜 만나? 결혼했는데 친정집에는 왜 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엄마 얼굴은 왜 못 보나. 그러면서 사건이 터져서 추석 때 친정을 가겠다. 남편은 남편 식구들과도 왕래를 안 해요. 명절이 돼도 저희는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지냈었거든요. 추석 음식 다 하고, 연휴가 기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다. 그게 발단이 돼서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더 못 참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례 6)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서 개입하는 가정폭력의 위험과 실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에서 처해지는 위험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의 폭력의 본질은 강압적 통제이다(허민숙, 2021). 가정폭력은 연구참여자들도 언급했듯이, ‘어디 하나가 부러지고’(사례 4), ‘피가 철철’(사례 7)나고, ‘경찰차를 부를 정도’(사례 15)가 되어야 ‘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국가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러한 폭력의 횟수, 폭력의 강도, 외형적 상처 등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그 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신체적 폭력이 반복적이고 심각하게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언어적·정서적 폭력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친정엄마랑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겠다고 남편한테 얘길 했는데 둘째가 아파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일찍 안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동네를 서성거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화가 났는지 제 목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서 죽이려고 행동해서. 그렇게 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분리조치가 돼서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사례 2)

‘강압적 통제는 여성을 지배하고 복종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가부장적 성차별문화의 직접적인 실천행위(허민숙, 2021: 237)이자 가정폭력의 시작이고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 개념 역시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닌, 가부장적 위계에 기반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폭력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코로나19 시기 고립도와 위험도가 높아지는 ‘집’

코로나19 시기 동안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이라는 인식에는 가정폭력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여성들에게 가정

폭력은 결혼 전, 결혼 직후, 또는 태어나면서부터(아동학대의 경우) 발생하였고, 그 근본에는 고립과 통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해 왔던 고립과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말했고, 이것이 가정폭력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가 대학을 늦게 가서 재택 수업을 2020년 시작을 했는데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전 가족이 4명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가스라이팅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형태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을 견디면서 서로가 민감해지는 시기다 보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사례 1)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잘 외출을 못 하게 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사례 2)

아무래도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갈등도 좀 더 자주 생기고. (사례 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게 되었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학생들은 재택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집이라는 한정적 공간 안에 장시간 함께 있으며 ‘갈등도 좀 더 자주 생기고’, ‘코로나 시국을 견디면서 서로가 민감해지는 시기다 보니 더 심해지기도 하였고, 장기화 되면서 ‘가스라이팅이나 감정 쓰레기통’ 등의 정서적 폭력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립화와 가족 내 갈등 등의 폭력발생 가능성 증가의 문제는 ‘집’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상상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을 제기한다(김원정 외, 2020). 감염병의 위험이 존재하는 공적 공간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서 사적 공간(집)을 구분 짓는 이분법적 인식은 재난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이 갖는 고립과 폭력의 위험성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코로나19 시기 상담소 운영 제한 및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외부인 접촉 최소화, 보호시설 입소자 일일 2회 발열 체크 의무시행, 휴관 권고 등의 지침 공문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정 외, 2020).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한 가정폭력 상담소의 대면상담이 전면 중단되어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지원과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상담)하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된다고 해서 종료가 되었죠. 그러다가 전화 상담으로 한 번 받았었어요. 30분 정도. 그때도 선생님 바쁘시다고 2, 30분 정도. 전화로도 괜찮은데 그분이 바쁘셔서 길게 못 했어요. 대면으로 하면 50분 정도에서 길게는 1시간 30분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로 2, 30분 하나가 흡족하지 않더라고요. [...] 2020년 4, 5월 그때 대면이 안 된다고 중단되고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에 일을 하게 되어서 낮에 가기가 어려워 흐지부지 된 거 같아요. (사례 10)

그 일이 있고 나서 상담을 하는데 코로나라서 대면 상담이 안되는 때가 있었어요. 거의 상담소 폐쇄처럼. 대면 상담이 안 될 때 남편이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있는데 집이 좁아서 다 들려요. 전화로 상담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남편 일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조마조마하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했어요. 그게 성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보고 해야 집중되고 전화로나 줄이나 화상으로 하면 할 말을 잊어서 힘들었어요. (사례 3)

사례 10은 2019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소가 대면상담을 중단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에는 대면상담이 가능해졌지만, 개인적인 일정(취업, 자녀양육 등)으로 결국 상담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사례 3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제한으로 상담소에서 대면상담이 불가능하여 전화상담으로 대체하였지만, 가해자인 남편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느라 집 안에서 전화상담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사례 3 역시 외출하기 여의치 않았고, 상담의 특성상 단순한 언어의 정보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효과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상담소들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대면상담 중단과 유선상담 대체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상담과 캠프 프로그램까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때는 아동 상담도 안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놀이치료 개념으로 여기 와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아동 상담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피해자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을 못 하니까. [...] 그리고 캠프가 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캠프에서 했던 집단 상담 중에 드라마 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전문적인 드라마 심리치료 강사님이 오셔서 해 주셨어요. 넓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 없이 자고 우리끼리. 아이들끼리 추억도 되고, 근데 코로나 그 때문에 그럴 못 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사례 3)

아내폭력 기반의 가정폭력은 그러한 폭력적 환경에 노출된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신나래, 2019). 따라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당사자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상담과 피해회복 프로그램(캠프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놀이치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상담과 아동 동반 캠프 프로그램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것이다. 사례 3은 ‘넓은 공간에서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편 없이 자고 우리끼리. 아이들끼리 추억도 되는 캠프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에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당사자와 자녀의 상담 중단은 단순히 서비스가 중단된 것만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치유가 중단된 것이다. 이것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국가는 언제든지 피해당사자의 회복과 치유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국가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코로나19 시기 보호시설 이용 경험 및 어려움

(1) 비공개 시설의 명과 암: 안전감의 제공과 공동생활의 불편함

일명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의 피해 회복, 트라우마 치유, 자립을 위해 피해당사자와 동반자녀의 숙식, 상담, 법률·의료지원, 아동상담 및 비밀전학 지원, 취업교육, 주거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행 가정폭력 피해지원체계의 중심을 이룬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쉼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폭력에서 벗어나 쉼터에 입소하면서 안전감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례 13)

원 가족으로 망가진 나의 삶을 복원한 것 같은 느낌. (사례 1)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중심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고립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을 가졌던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활동가 및 다른 폭력 피해자들과 교류하면서 힘을 얻고 자신감을 갖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책이 없었고, 앞길이 막막했는데 쉼터에 와서 상담 받고, 상담 선생님들 덕분에 힘이 많이 되었어요. [...] 거기서 마음을 먹고 쉼터 생활을 했죠. 활동가 선생님들도 도움이 됐고 다른 폭력 피해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신감도 생기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서 1년 생활하면 주거 지원까지 된다고 했고 9개월쯤에 주거 지원을 받았어요. (사례 14)

네, 많아요.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퇴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일경에 퇴소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 보다는 제가 당당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만족하고 있어요. (사례 11)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쉼터의 통합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만족해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완전한 분리과 차단이 되는 것을 중요한 장점으로 꼽았다. 사례 14는 쉼터에 있었던 시간이 ‘생애에 가장 편안한 시기’였다고 할 만큼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안정감 속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참여자들도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가해자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비공개 시설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은 상당한 안정감과 안전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쉼터에 있을 때 내 생애에 가장 편안한 시기였어요. 모든 생활이 단절되고 누구와 연락이 안 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기 쉼터는 직접 식사 준비를 했는데 그동안만큼은 편하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 그리고 쉼터에서 생활하면 사생활이 보호되니까 그게 안심돼요. 쉼터에서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고. (사례 14)

또 남편이 술 먹으면 불안에 떨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것 없이 아이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고,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남편 연락의 불안함도 없었고, 저는 핸드폰 없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5)

제일 처음 받았던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비공개 시설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 가장 필요했었고 좋았던 서비스였어요. (사례 8)

그러나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인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보복과 폭력의 두려움이 심화된 피해 여성들에게 비공개형 쉼터는 높은 안정감과 안전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들은 다양한 상황과 차이 속에서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회복해 나가게 되고, 외부와 단절되고 생활에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폐쇄형 쉼터에서의 생활은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통제와 고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기가 또 쉼터라는 장소가 비밀의 장소다 보니까 외출이나 핸드폰 사용 그런 게 차단이 되는 규칙. 규칙이 저희를 위해서 안전하기는 한데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니 좀 힘들었어요. [...] 남편이 추적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심하라고 하세요. (사례 11)

예를 들면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가 할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위험하다고 가족과 연락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족과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으로서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하고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 그리고 외출시간이 3시간이어서 조금 짧았다는 점ियो. 아이들이 좀 놀고 싶다고 할 때는 연장해서 들어가긴 했는데 입출 할 때마다 보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사례 8)

쉼터는 제약이 있었어요. 핸드폰도 소지가 안 되고 외출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일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단절된 쉼터였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가 “언니, 나는 같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큰 아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때 독립을 하고, 우울증이 심한 스무 살 아이와 제가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쉼터로 입소를 한 거예요. (사례 6)

현재 많은 보호시설들은 입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핸드폰 사용 중단, 제한적 외출, 그리고 일상생활(직장, 학교

등) 중단 등을 요구한다.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운영 원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핸드폰 사용, 직장 생활 등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 원칙으로 인해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직장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관계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사례 6은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 때문에 결국 쉼터에 입소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현대사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가정폭력 이후 쉼터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에 따른 규칙들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해지는 건 자유가 없으니까. 잠도 10시에 자야하고 밥도 그때그때 먹어야 하고 핸드폰 못하고. (사례 2)

딸아이는 공간이 한정되어있나 보니 감옥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고, 여기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안전 규칙이 많아서 엄한 것 같아요. 아이가 구속당한다는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8)

이러한 상황은 폐쇄형, 공동생활 중심의 보호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상황에 적절한 보호시설 운영방식이 다양화되지 못한데 따른 문제로 분석될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깊은 공포와 보복 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형 시설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다 자유로운 생활과 직장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삶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문숙(2019)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80~90년대에 수립된 자녀를 둔 전업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에서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공동생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의 한계

현행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은 공동주거시설이면서 한 방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명이 감염되면 함께 거주하는 모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었던 시기에 쉼터에서는 모든 식기를 삶고, 소독하는 등의 대공사를 매 끼니때 마다 치러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감염이 종종 발생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한 방에 감염 가족을 격리하고 나머지 전체 인원이 남은 방에 몰려 협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쉼터에 들어와서 쉼터 내 다른 가족이 코로나에 걸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구를 다 삶았어요. 삶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일회용 그릇을 사용했어요. [...] 다 (PCR 검사)하고 들어오는데 중간에 아이 한 명이 걸리다 보니까 공동생활로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걸리더라고요. 식사 준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을 조절해서 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안 먹으니까 걱정도 되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킁킁한 방 안에서 견뎌야 하니까 힘들었죠. [...] 그리고 일단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방이 협소했어요. 방이 현재 3개인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양쪽 방을 써서 안 걸린 사람들이 한방에서 생활했었고 환기가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제가 식사를 준비해서 갖다 주는데 입맛들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방이 좀 협소했었어요. 그런 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 11)

여기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보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 코로나에도 약간 헤이해졌다고 느껴요. 사람 많은 식당을 간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약물 부작용이 있어서 백신을 못 맞은 상태이고 아이들도 백신을 안 맞았는데 지금도 항상 불안해요. 한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면 여기는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고 또 불안하고. 한사람이 열이 나면 다 같이 대형 병원에 가서 한 시간 넘게 줄 서서 코로나 검사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3번 넘게 있었어요. 그게 힘들거든요. 단체 생활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8)

별도의 방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화장실, 부엌 등 공동생활시설을 공유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최근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인원이 감소하면서 보호시설의 상황에 따라 입소자에게 1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이나 부엌, 거실 등의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자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감염에 대한 공포는 쉼터 거주자들을 더욱 예민하게 하고, 쉼터 차원에서는 예방 목적으로 기존의 안전 규칙을 강화하게 되면서 보호시설 생활은 피해여성들에게 안전감과 안정감을 주는 감사한 공간에서 ‘창살없는 감옥’으로 변모하였다.

코로나 격리 때는 화장실 하나는 코로나 걸린 분들만 사용해서 나머지 화장실 한 개로 사용해서 줄 서야 했었고, [...] 3월에 쉼터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코로나가 퍼져서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쉼터가 가정별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방에 같이 생활하고 있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코로나 걸린 분들과 방을 같이 썼었거든요. 그러다 아이는 다 낫고 1주일 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식당에서 소독을 다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코로나 격리 공간이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코로나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어요. 쉼터에서. (사례 8)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자가격리 기간이었어요. 부엌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 밥을 먹고 치우고 소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대공사처럼 진행되었어요. 코로나는 공동생활에 가장 취약해요. 한 사람이 걸리면 전파력이 너무 쉬웠어요. 저도 걸린 게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걸리면 바로 걸리는 그런 취약한 점이 있어서 불편하긴 해요. (사례 1)

근데 쉼터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창살 없는 감옥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어요. 그나마 이런 곳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함은 있어요. 근데 생활하면서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종종 있어요. (사례 9)

(3)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부재로 인한 문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외부 강사의 음악·미술·원예치료 프로그램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특히 사례 6은 쉼터 거주자와 퇴소자 모두 함께 놀러가는 교류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비공개 쉼터 특성상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거주자들에게 ‘여행의 전부’였던 여름캠프가 취소된 이후 ‘사는게 무료하고 친구가 없어진 것 같고 우울감도 더 생겼다고 말했다. 쉼터 거주자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공연보고 음악회 가고 영화관 가고 그런 것 너무 잘 해주셨었어요. 저는 처음 거기서 예술의 전당 가서 호두까기 인형 보았어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삶이 힘들어서 문화생활이나 남들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딸이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이고 근데 그런 데를 그렇게 못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달에 또 한번은 야유회에 나가서. 근데 나가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왜냐면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게 좋았고 코로나 전에는 그 안으로 강사님 초빙을 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코로나 후에는 강사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어요. [...] 코로나 터지고 바로.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고 재개되어서 저는 퇴소를 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 수공예품 만들기도 하고 바자도 해요.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갔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아예 중단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 중단되었죠. (사례 13)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외부 사람이 못 오니까. 우리도 생활에 재를 받죠. 어디를 가도 많이 못 나가게 했고, [...] 프로그램하고 외부 사람도 와야지 좋은데 지지도 해주고. 그 힘이 큰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게 좀 힘들어요.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례 14)

쉼터에서는 다 같이 놀러 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오밀조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집단 상담도 제한이 되고 하니깐. 저희는 사실 그런 것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꼈거든요. 저희가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못 만나니까 조금 마음이 허한 것 같은. 의지하면서 지냈던 사람들끼리 만나지 못하고, 여름 캠프를 가지 않으면 놀러 가기가 힘들어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조금. 쉼터에서 가는 캠프가 저희에겐 여행의 전부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아예 없었어요. 사는 게 무료하고 친구가 없어진 것 같고 우울감도 더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6)

코로나19 위험시기에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한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 벨기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은 쉼터 거주자들의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찍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쉼터 지침을 마련하고, 추가 격리 공간이 필요할 경우 외부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김원정 외, 2020). 코로나19 시기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한 한국과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 국외사례의 차이점은 가정폭력 쉼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해자로부터의 격리’로 둘 것인지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에 둘 것인지에 따른 차이일 것이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넥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시설 이용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감염 예방 조치가 실시된 2020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과거부터 존재해 왔었던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연관된 문제와 이슈들은 팬데믹이라는 재난 시기를 경과하며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과 통제에서 출발하는 가정폭력의 양상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가해자의 전략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조치들 속에서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집에 머물라는 사회적 지침은 공적인 공간을 감염병으로부터 위험한 공간으로, 사적인 공간인 집은 이와 대비되는 안전한 공간으로 상정하여 공사 이분법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고,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가정폭력의 맥락을 탈각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험과 친밀성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유선전화, 대면상담 중심의 전통적 상담기법의 다양화와 변화의 필요성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여성 내부의 다양성 증가와 사생활이 보호되기 어려운 공동생활 운영에 따른 보호시설 거주 의 어려움 역시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어렵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 운영지침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는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안전과 직장생활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시기 여성폭력의 위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의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맥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를 경유하면서 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했던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및 재난 상황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들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로 가정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운영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가 그림자 전염병(shadow pandemic)처럼 확산될 것을 경계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방안 수립을 권고한 국제사회와 달리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제한 또는 중단을 권고하였다(김원정 외, 2020).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어떤 환경적 변수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서비스가 아닌, 복지서비스로 바라보는 인식에 기인한다. 유엔 위민은 팬데믹 시기에도 피해자 상담소 및 쉼터 등 여성폭력 관련 지원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감염병 시기에 감추어지기 쉬운 여성의 폭력경험을 드러내고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UN Women, 2020b). 이러한 재난 시기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확인하여 향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개발하여 각 기관에 선제적으로 배포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피해여성들이 경험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은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젠더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통합매뉴얼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원칙과 지침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 국가적 차원의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어려움들은 개별 기관 및 활동가들의 역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피해여성들이

제공받는 지원서비스의 수준에 차이를 발생시켜 모든 피해여성들이 안정적이고 동등한 수준에서 각자의 상황에 걸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권리를 침해한다. 미래사회 또 다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비대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방법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화 경향과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단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쇄적인 보호시설 운영 방침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고, 취업상태가 아니면서, 집중적인 케어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여성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치유하고자 하는 피해여성들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복합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피해지원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피해자 지원시설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지원 관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과 일상의 삶에 대한 회복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관점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 입안 및 정책 추진 과정에 개입하는 관련자들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동일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다.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경험한 위기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팬데믹 시기에 드러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쟁점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원정·구미영·류임량·유화정·임연규. 2020. 『코로나(COVID-19) 대응 정책 특 정성별영향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 김홍미리. 2018.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 지원 모델 연구 보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모델 연구 보고 및 토론회: 당사자가 말하는 ‘자립’의 의미』 자료집 (2018.5.29.). 한국여성의전화.
- _____. 2020. “코로나19 시기 ‘집안’은 안전한가?: 가정폭력 신고율 하락의 의미.” 『젠더이슈 8호』.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소진. 2022.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민주법학』 78: 179-203.
- 김효정. 2020. “코로나19 와 가정폭력: 팬데믹의 젠더화된 효과.” 『여성연구』 107(4): 5-29.
- 김효정·황정임·고현승·박언주·유화정.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문숙. 2019.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 프로젝트 ‘당신 곁에 뷰티풀 라이프’의 성과와 한계.”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9.12.10.).
- 송란희. 2020. “코로나19와 가정폭력: 정책과 관점 모두의 부재.”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2020.7.16.).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나래. 2019.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연구: 쉼터거주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4): 119-150.
- 신상숙. 2008.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 정책.” 『한국여성학』 24(1): 83 - 119.
- 여성가족부. 202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 _____. 2023. 『202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 _____. 2024.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유지영·유화정·민가영. 2021. 『여성긴급전화 1366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유화정·송란희·홍예슬. 2019. 『서울시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개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미정·변화순·황정임·이소영. 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춘숙. 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제오복. 2020.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편.”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와 젠더폭력-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자료집(2020.7.16.).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2022.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된 35주년 기념 토론회 -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자료집(2022.6.10.).
- 허민숙. 2021. “국가가 초래한, 국가가 알지 못하는 위험: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한국여성학』 37(1): 223-251.

(2) 국외문헌

- Enarson, Elaine and Bob Pease. 2016. *Men, Masculinities and Disas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narson, Elaine. 1999. “Violence against women in disasters: A study of domestic violenc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Violence Against Women* 5(7): 742-768.
- Fraser, Erika.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Parkinson, D. 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28(2): 28-35.
- UN Women. 2012. *Handbook for national action plans on violence against women*. NY: UN Women.

(3) 인터넷 자료

- 한국여성의전화. 2020. “성명 및 논평: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67909 [검색일: 2024. 3. 1.]
- UN Women. 2020a. *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issue-brief-covid-19-and-ending-violence-against-women-and-girls> [검색일: 2024. 3. 1.]

- _____. 2020b. *Brief: COVID-19 and Essential Services Provision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brief-covid-19-and-essential-services-provision-for-survivors-of-violence-against-women-and-girls> [검색일: 2024. 3. 1.]
- UNFPA. 2020. *COVID-19: A Gender Len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https://www.unfpa.org/resources/covid-19-gender-lens#> [검색일: 2024. 3. 1.]
- WHO. 2020. Joint Leaders' statement - Violence against children: A hidden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who.int/news/item/08-04-2020-joint-leaders-statement--violence-against-children-a-hidden-crisis-of-the-covid-19-pandemic> [검색일: 2024. 3. 1.]

Abstrac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operating victim support facilities through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have be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Yoo, Hwa-Jeong
(Dongguk University)

Kim, Hyo-Ju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is based on the critical awareness that preemptive measures must be sought to ensure the stable opera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in the next pandem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omestic violence victim support facilities and derive improvement tasks. To do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ho had experienced using victim support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cial measures implemented to prevent COVID-19 resulted in an increased risk of violence by isolating female victims at home, and the isolation and control of victims wer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the victim support system was found to play a vital role in helping victims escape violent situations and regain a sense of safety and stability. In the case of counseling centers, however,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the ban on face-to-face counseling and the reduc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s. In the shelters, difficulties in communal liv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space appeared to be intensifying. Therefore, the safety of victimized women and their recovery to their daily lives were delayed. The conclusion is to reaffirm the operating

principles of victim support facilities that must be permanently op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establish a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develop and distribute an integrated manual. The mid-to-long-term improvement plans included diversifying facility operation methods and discovering policy demands based on victims' experiences.

Key words: COVID-19, Pandemic, Domestic violence, 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28일